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1년 12월 후원미사는 20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윤소영 리오바님, 황준호 요셉님, 김영자 카타리나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9~10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36,752,967		
구 분	2021년 9월		2021년 10월	
자 동 이 체	731명	10,495,500	750명	14,019,660
지 로	54명	1,047,320	108명	1,025,050
CMS이체	102명	1,220,400	101명	1,210,690
이주사목위원회		2,734,021		5,000,326
합 계	887명	15,497,241	959명	21,255,726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6,0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교네 지역아동센터	1,0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4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6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1,0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2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1,4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5,2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6,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5,502,967	우편비, 출판비 등 운영비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36,752,967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1. 11 / 제60호

펴낸날 2021. 11. 15.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신부님 글 작은 관대함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머니는 자녀가 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례하다고 이야기하고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말하지만, 어머니는 자녀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며 자녀를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자녀에게 관대할 수 있는가?

아마도 어머니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녀가 몸을 뒤집을 때, 자녀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자녀가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자녀가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며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겪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아이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성모님도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가로막고 싶었고, 아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 모든 마음을 가슴에 새기셨습니다. 성모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이런 관계는 낯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복음 선포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관대하게 낯선 이방인들이나 자신의 반대자도 받아들이며 하느님 안에서 일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주사목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지원과 도움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관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오는 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이 나의 삶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낯선 이방인들을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사치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하느님의 의지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새로운 신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방 호의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관심의 무덤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에게 소리치고 있다는 것을 듣는 작은 관대함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작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공동체 소식

서울가톨릭상호문화센터 소식*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알록달록 협동조합>에서 광희문 성지의 의뢰를 받아 성지 2층에 기념품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본 위원회가 있는 노동사목회관 1층 공방 오픈에 이어 광희문 성지에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기념품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에코백과 파우치, 앞치마, 미사 관련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구경해주세요.

위원회 소식* - 세계 가난한 이의 날



11월 14일은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이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도록 촉구하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진 상황으로 타인의 상황에 대해 귀 기울이고 관심 갖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주민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차별 섞인 기사와 시선을 접하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이 상황에 함께 고통받고 있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웃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안에서의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더욱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본 위원회도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이주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들을 더욱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5차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 중>

이제 다섯 번째 해를 맞이하는 세계 가난한 이의 날 여행이 우리 지역 교회 안에서 점점 더 뿌리내리고, 가난한 이들이 어디에 있던 그들을 직접 만나는 복음화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이 문을 두드리기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집으로, 병원과 요양원으로, 거리로, 때로는 그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로, 그리고 쉼터와 보호소로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무엇을 갈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모 마찰라리(Primo Mazzolari) 신부의 간절한 애원에 우리 마음을 함께 모읍시다. "가난한 이들이 있는지, 그들이 누구이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저에게 묻지 말아 주시기를 당신께 청하나이다. 그렇게 물으시면 저희가 양심과 마음을 울리는 호소를 회피하려는 술수를 부리거나 변명을 하게 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난한 이들의 수를 헤아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숫자로 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수를 헤아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 안아야 합니다"(『아데소』 [Adesso], 7-15항, 1949.4). 가난한 이들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가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되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음적이겠습니까. 우리도 가난하다고 말할 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가난한 이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이며 그들이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베들레헴 어린이집 촬영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가톨릭평화방송에서 어린이집의 모습을 촬영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사회 내의 사회적 약자와 공존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방영 예정은 12월 24일과 25일 가톨릭평화방송의 유튜브와 TV로 방영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공동체 소식*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공동체인 필리핀 공동체가 올해 설립 2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을 위하여 199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여러 신부님들을 거쳐 현재는 닐로 신부님께서(필리핀외방 선교회) 지도사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혜화동성당(매 주일 오후 1시 30분), 소공동체 '엘 사다이'(1,3째 주일 오전 11시), 독산동 성당(매 주일 오후 1시) 그리고 필리핀센터(성북동, 수요일 오후 9시,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서 주일 및 평일 미사를 자국어인 '타갈로그어'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혜화동 성당 미사와 온라인 미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혜화동 성당 주일미사에는 약 700명, 대축일미사에는 약 1,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전처럼 빈 자리 없이 북적거리며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민 모두가 주님 은총 속에 건강히 잘 지내다가 뵙기를 기도드립니다.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소식*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외국인,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정도 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공존하고 있기에 서로에 대해 알고 상호존중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생활 모습과 예절 문화에 대해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과 대화 기술들을 배워 실천함으로써 상대방을 존중하는 학생이 되기 위한 교육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낯설다고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부터라도 차별과 편견 없이 서로에게 다가가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기부금영수증 안내*

2021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입금하신 후원금을 확인하여 기부금영수증을 2022년 1월 둘째 주에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괄 발송 전 기부금영수증을 먼저 받으시려는 분이나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이주사목위원회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였던 올해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